

대한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제10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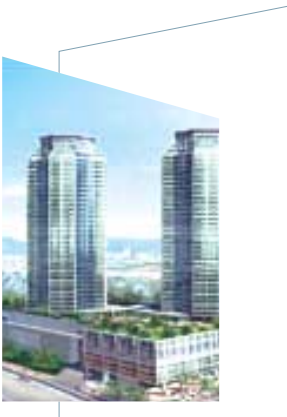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는 지난 11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플랜트 건설현장 노임조사 △2004년도 플랜트설비공사 실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등 추진업무를 보고하였다.

플랜트 건설현장 노임조사 결과 지난 8월 31일 발표된 2005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 노임단가에서 평균 1.5%가 상승되어 적용되었다. 그러나 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플랜트직종 노임조사 참여업체 수가 22곳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장 실질급 노임단가 반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0곳 이상의 자료제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협의사항으로 △불공정 하도급계약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확정 등을 의논하였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되도록 하는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확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제16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12월 9일과 10일 2일간 제16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서울정수기능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은 총 70명이 서류를 접수시켜 서류심사에서 2명이 불합격하였으며, 건축배관설비 49명, 전기용접 9명, 기계조립 8명, 공조냉동기계 1명이 실기검정시험에 응모하였다.

한편 이날 인정기능사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서울시회 강석대 회장과 위원인 전북도회 정성조 회장 등은 인정기능사 실시 시험장과 건축설비학과의 실습장 등을 시찰하고, 응시자 및 관련교수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교학처장 및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되도록 기계설비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주야 및 일정에 관계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 정수기능대학 실습장 시찰

서울시회 제170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7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회는 △11월 9일 분리발주수수 회원사 간담회 개최 △11월 23일 건설공사 노동·노무실무 강습회 개최 △11월 15일 2005년도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11월 18일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시·도회 담당자 회의 참석 △2005년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 현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주요내용 △회원사 신청서류 발급업무 실시 △회원사 업무안내 공문시행 △회원관리업무 등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또한 서울시회는 △대표회원 간담회 및 송년회 개최 △2005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제16회 인정기능사기능심사 실시 △산업체 위탁교육생 접수 △제3차 건축설비 CAD교육실시 △2007년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 항목조사 실시 등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서울시회는 지난 11월 23일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회 신흥식 고문노무사 강의로 △건설공사관련 현장 노무실무 처리방법 및 절차 △건설공사관련 4대 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공사 노동·노무실무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회는 지난 12월 6일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 담당자의 건설업통계조사 설명,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전산패키지 사용 설명 등 2005년도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회 분리발주수주 회원사 간담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1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시회 회장단 및 (주)금화피에스시 송기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분리발주수주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리발주 수주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수주업체의 책임시공과 본사에서 직영 처리로 시공품질향상 당부 △문제 발생시 현장감독관과 긴밀한 협조로 해결방안 모색 △발주자의 시공사 지정 선정요구에 개한 해결방안 협의 등이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회원사의 수주증대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최대 사업목적으로 추진하여 1994년 4월 제45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타당성을 행정쇄신과제로 확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당초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저지조향이었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 제68조)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기능토록 개정한 후 10년간 각 정부 발주기관을 상대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꾸준히 확대·추진한 결과 2005년 현재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시·도청 및 교육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KT 등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설비건설업계의 자율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분리발주공사에 대한 발주관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분리발주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회

2005년도 제6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지난 11월 15일 명선건설(주)의 고양풍동주공 옥외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시공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하므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 후 평가회의를 통하여 우수(성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회원사 또는 현장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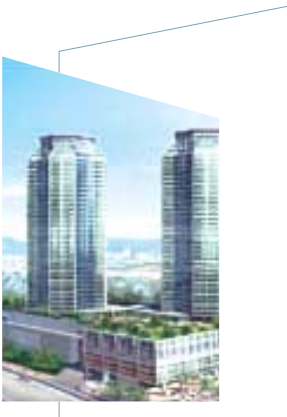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서울시회

대표회원 간담회 및 송년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2월 13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 정승일 명예회장, 홍평우 명예회장, 박인구 명예회장,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찬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원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회 설립이래 처음으로 대표회원 간담회를 겸한 부부동반 송년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표회원 사장님들의 사업과 가정을 위하여 항상 마음을 줄이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여 주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동안 바쁜 사업에 못 나누었던 정담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우리 대표회원님들만이라도 직접공사비 실행에도 못 미치는 덤핑수주는 해당업체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회원 상호간의 불신 및 반목과 우리 업계 전반의 공신력 추락으로 우리 업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변 회원사들에게도 적극 알려 우리 업계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간절히 부탁한다」고 피력하였다.





△「웃는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인기 방송인 김보화

한편 이날 서울시회는 업무현황보고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항을 신설하여 2005년 7월부터는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여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항을 신설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고용보험·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금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합리화, 산재사고 발생시 PQ심사감점제도폐지 등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회 관내에 소재하는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분리발주 홍보와 협의를 통해 700여억원을 분리발주가

되도록 하였으며,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9일 분리발주 수주회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통해 성실시공과 발주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분리발공사현장에 대한 시공품질점검을 통하여 발주관서 및 타업종으로부터 좋은 호응과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그밖에 CAD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회원사의 인건비 및 공사원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수기능대학에 CAD교육을 위탁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120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초급 및 중급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표회원들은 인기 방송인 김보화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행운의 추첨과 아울러 부부 장기자랑 등 오락시간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였다.

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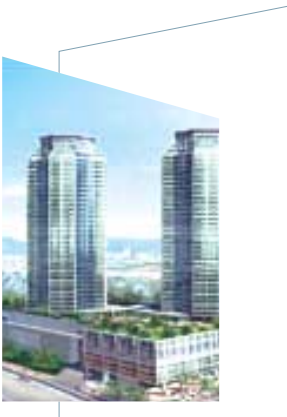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경기도내 교육청 기계사무관 간담회 개최



경기도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12월 12일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교육청 기계설비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회장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와 시공현장에서 철저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설비업계도 분리발주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BTL(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일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BTL(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한 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교육청 기계사무관들은 「향후 BTL을 제외한 관내 교육시설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 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11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협회예산을 절약해 모은 2천여 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23개 미신고 복지시설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사랑의 집」과 미원면 소재 「함께 하는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충북도회는 지난 12월 13일 「기아대책 충청지역본부」를 통하여 결손가정 아동 두 명의 어린이를 선별 받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청주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장학기금 후원은 물론 회원사 임·직원들의 주변을 돕기 위해 딱한 사정을 접수받고 있다.

앞으로도 충북도회는 교육청을 방문하여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나설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도 경로당 유류 보내기 지원과 사랑의 입장권 보내기 행사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남모르게 숨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협회예산을 절약해 모은 경비와 협회임원들이 회의비를 아끼고, 회의 참석 거마비를 모두 지원경비로 내 놓아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회원사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 환원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했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